

## 현대 조형예술의 표현매체로 활용된 레이스의 비교 고찰

김 선 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 요 약

본 연구는 건축과 인테리어, 설치작품, 공예, 패션 등 현대조형예술에 표현매체로 활용된 레이스의 사례를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소재의 영역을 넘어 확대된 표현매체로서 레이스의 위치를 재조명해보고, 창작디자인 전개에 있어 표현영역의 확대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레이스의 문헌고찰과 패션을 비롯한 건축과 인테리어, 설치 미술, 공예 등 현대조형예술에 표현매체로 적용된 레이스의 실증적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전통 레이스는 의복과 연관된 직물의 소재라는 고정된 관념을 벗어나 현대 조형예술의 작품 속에서 레이스의 구조나 기법, 문양 등 레이스의 특징적인 요소들은 작품세계를 형상화하는 표현매체로 간주됨으로써 새롭게 해석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전통 레이스라는 표현매체를 기반으로 전개됨에 따라 공간적 투명성, 선과 문양에 의한 장식성, 수공예적인 예술성, 중첩에 의한 가변적 조형성, 확대된 오브제로서 탈 경계성이라는 공통의 표현특성을 나타내며 레이스에 대한 새로운 창조적 시각을 갖게 하였다.

주제어: 조형예술, 표현매체, 레이스

## I. 서론

오늘날 현대사회의 문화 전반에서 전개되는 모든 영역간의 장르와 경계 초월의 경향은 조형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 각 분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새롭게 한다. 과거의 전통적이고 고정된 개념 대신 기존의 것들을 해체시키고 새롭게 조명하는 사고의 전환은 전 예술분야의 조형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sup>1)</sup> 특히 미국의 미술 월간지 『Art news』가 제시한 현대미술의 10가지 트렌드 중 하나는 재료의 혁명이라고 하였듯이<sup>2)</sup>, 섬유, 종이, 나무, 석고, 플라스틱, 금속, 비닐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컴퓨터 칩, 버려진 것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모든 오브제들은 기존의 상식적인 소재의 범위를 넘어서 작품의 독창적인 조형성을 나타내는 매체로 작용한다. 즉 표현매체의 확대 및 소재나 기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작품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을 모색함을 물론 디자이너 특유의 주관적 예술성과 창조적 비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 예 중의 하나가 조형예술분야에 있어 확대된 오브제 개념이자 조형매체로 적용된 레이스이다. 과거 귀족의 신분이나 부의 상징으로서 사치의 상징물로, 또 수공예적인 가치를 지닌 공예제품으로서의 레이스는 오늘날 다양한 조형예술 분야에 있어 새로운 표현매체로 나타나고 있다.<sup>3)</sup> 패션디자인 영역에서 화려하고 우아하며 관능적인 이미지까지 표현하는 레이스는 이제 패션디자인의 소재라는 한정된 영역을 넘어 건축이나 인테리어, 가구, 공예, 설치작품에 이르기까지 레이스의 구조적 조형성과 장식성을 반영한 예술작품으로 새롭게 재해석 되고 있다.<sup>4)</sup> 그러나 레이스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레이스의 역사적 변천과정이나 복식사적인 측면에서 장식요소로서의 연구(이경희, 2002<sup>5)</sup>; 이순홍, 2003<sup>6)</sup>), 또는 에로티시즘과 관련된 패션의 이미지 연구, 레이스기법을 활용한 패션디

자인이나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김용숙, 최종명, 2008<sup>7)</sup>; 맹월, 2011<sup>8)</sup>; 조은주, 간호섭, 2004<sup>9)</sup>; 최현미, 2007<sup>10)</sup>; 김현진, 김혜경, 2011<sup>11)</sup>)만으로 새로운 예술적 표현수단으로 확대된 레이스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조형예술에 활용된 레이스의 사례를 통해 표현매체로서 레이스를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소재의 영역을 넘어 확대된 표현매체로서 레이스의 위치를 재조명해보고 창작디자인 전개에 있어 표현영역의 확대를 도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sup>12)</sup>로 현대조형예술에 활용된 전통 레이스의 경향을 살펴보고, 본고에서는 각 영역별 사례고찰을 통해 심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레이스의 개념과 변천, 종류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헌 고찰과 건축, 패션, 공예, 설치미술 등 현대조형예술에 표현매체로 적용된 레이스의 사례고찰을 위한 실증적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범위는 2000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레이스나 레이스의 구조와 연관되어 전시된 작품과 전시, 패션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레이스란 재료와 상관없이 의복에서의 레이스처럼 공간감, 투명성, 문양감 등 열려진 시각적 표현을 제공하는 시각적인지 영역의 조형기법으로 한정하였다.

## II. 레이스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 레이스의 개념과 변천

레이스의 어원은 새끼나 끈을 의미하는 라틴어 ‘Lacium’에서 유래한다고 하며<sup>13)</sup>, 실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거나 엮기, 꼬기, 매듭 등의 방법으로 무늬를 나타낸 옷감을 지칭하는데, 고대 유물들에서 장식용 오픈워크 직물이 발견되었으나 본격적인

레이스의 생산은 르네상스시대부터로 전해진다.<sup>14)</sup>

15세기 경 종교적 목적에서 수녀들에 의해 제작된 레이스는 교회용 제대포나 미사제복의 장식에 사용되었으나 르네상스시기로 넘어가면서 종교적 목적에서보다는 장식적인 개념에서의 레이스로 등장하였고<sup>15)</sup>, 니들 포인트(needle point)와 보빈 레이스(bobbins lace) 등 다양한 레이스의 생산이 전개되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기 레이스는 복식의 장식적인 디테일로서 귀족의 신분과 부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등 과시적 소비의 산물로 간주되었다고 하며, 특히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제작 방법에 있어 높은 난이도뿐만 아니라 엄청난 노고와 긴 시간을 요하는 매우 복잡한 고가의 직물로 인식되었으며 대부분 세탁이 가능한 린넨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한다.<sup>16)</sup> 그러나 1800년 이후부터 면사가 더 많이 사용되었고 견사와 금속 사뿐만 아니라 양모, 기타 모 섬유로 만든 실도 사용되었다.<sup>17)</sup> 김용숙, 최종명(2008)<sup>18)</sup>에 따르면 17세기 레이스는 레이스의 전성기로 바로크 레이스라고도 하였고 남성적인 이미지와 거친 그물코를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 또 레이스는 16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달했지만 프랑스는 17세기 후반 레이스 기술을 도입하여 수출까지 하는 등 이탈리아보다도 우월한 지위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는 레이스에서 변화되어 투명하고 여성스러우며 무늬는 섬세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나타냈고,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견직물장식 발전과 연계되어 레이스 생산에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sup>19)</sup> 즉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등 예술 및 복식의 변화 양상과 함께 레이스의 특성 또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함께 프랑스 혁명으로 프랑스 궁정이 몰락되어 레이스 수요는 격감하였고, 자카드(jacquard) 편기, 리버(leavers) 레이스 편기 등의 개발에 의해 기계 레이스가 등장하여 수공 레이스의

복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되기도 하였다.<sup>20)</sup>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기계제품과의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서도 수공레이스의 명맥은 이어졌으나 1920년대에 이르러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일부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념품을 제작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sup>21)</sup> 그러나 오늘날 수공, 또는 기계레이스를 막론하고 다양한 레이스들은 장식적인 가치를 지닌 예술작품으로 패션뿐만 아니라 수많은 디자인 제품에 활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 2. 레이스의 종류와 특성

레이스 종류는 제조방법에 따라 크게 수공 레이스와 기계 레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수공 레이스는 바늘로 뜨거나 맷는 방법, 또는 감치고 짜는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다양한 레이스의 종류로 구분되며, 기계 레이스는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라셀(raschel) 편기, 자수 레이스기, 리버 레이스기, 플레인(plain) 레이스기의 기계를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sup>22)23)</sup> 대표적인 레이스 종류를 정리하면 <표 1><sup>24)25)26)27)28)29)</sup>과 같다.

이와 같은 전통 레이스 소재가 지닌 특성은 무엇보다도 제작과정에서 생성되는 공간적 투명성과 다양한 문양에 의한 장식성이라 할 수 있다. 이호영(2004)<sup>30)</sup>은 콜린 로우(Colin Rowe)의 투명성을 언급하면서 물리적 투명성과 시각적 투명성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물리적 투명성이란 재료의 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유리에 의한 가시적 투명성을 의미하며, 둘째, 시각적 투명성은 현상적 투명성으로 재료의 물리적인 성질에 의존하지 않는 포괄적인 감성으로서 물체의 다중성을 암시하거나 이를 표현하는 형태구조 및 공간이 주는 이미지로서의 투명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레이스가 나타내는 표현특성 중 하나는 뚫려진 구조적 형태를 통한 투명성이라 하겠다. 오픈워크에 의해 구

<표 1> 전통 레이스의 종류

구분	종류	특징	구분	종류	특징
수공 레이스	크로세 (crochet)	코바늘 뜨개바늘로 체인처럼 편성하여 여러 투명한 무늬를 만든 것	기계 레이스	리버 (leavers)	여러 가닥의 실을 꼬임을 주면서 복잡하고 화려한 무늬를 구성한 레이스
	보빈 (bobbin)	필로(Pillow) 레이스라기도 부르며 틀 위에 문양이 그려진 종이를 놓고 문양에 따라 바늘을 꽃은 후 보빈에 감은 여러 가닥의 실을 감거나 교차시켜 무늬를 나타낸 것		케미컬 (chemical)	수용성 비닐론 직물에 면사나 모사로 자수한 후 바탕천을 화학처리에 의해 용해하여 자수만을 남긴 레이스
	마크라메 (macrame)	굵은 실이나 가는 끈을 활용하여 손으로 맺어 무늬를 만드는 레이스		라셀 (raschel)	라셀편물기나 자카트 라셀편물기로 만든 편물레이스의 일종
	니들 포인트 (needle point)	버튼 홀 스티치나 블랭킷 스티치로 무늬를 만들고 가장 자리를 처리한 후 스티치 바깥부분을 잘라내는 킷 워크 레이스의 일종		엠브로더리 (embroidery)	직물이나 네트바탕에 무늬 모양을 나타내도록 구멍을 낸 후 구멍 주위를 자수하거나, 자수기를 사용하여 수를 놓은 레이스
	태팅 (tattng)	복을 사용하여 실을 맺으면서 뜨는 레이스			

성된 레이스는 이 공간을 통해 시각적으로 가벼움과 개방적 이미지를 나타내며 더 나아가 빛과 공기의 투시로 투명함이라는 특성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공간을 통해 투영된 빛은 공간에 있어 평면적 깊이나 표면의 부조적인 조형효과까지도 표현하게 하며, 다양한 선에 의한 연속적인 결합 및 식물, 동물, 문장, 신화 등을 도안화한 다채로운 문양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무한한 장식성을 표현하게 된다.<sup>31)</sup> 그리고 투명성과 장식성이라는 레이스소재 자체의 조형적 특성 내면에는 수공예적인 가치를 반영한 예술성뿐만 아니라 과거 귀족 신분이나 부의 상징으로서 사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 III. 현대조형예술의 표현매체로 활용된 레이스의 비교 고찰

본 장에서는 패션, 건축, 설치미술, 공예분야에서 표현매체로 활용된 레이스의 사례를 비교 고찰하였다. 패션은 의복을 비롯하여 메이크업 및 기타 소품으로 구분하여 구조적 기법이나 소재적인 측면에서 활용된 경우이며, 패션 이외 영역에 활용된 레이스는 활용된 재료와 상관없이 공간감, 투명성, 문양감 등 의복에서의 레이스와 같은 표현을 제공하는 시각적 인지 영역의 조형기법으로 한정하였고 레이스의 구조적 기법이나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발표된 작품과 전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1. 패션과 메이크업

### 1) 패션

레이스 소재는 다양한 장식용품뿐만 아니라 패션의 영역에 가장 많이 활용되어 다채로운 이미지를 연출하게 된다. 김용숙, 최종명(2008)<sup>32)</sup>은 현대 패션에 표현된 레이스 소재를 로맨틱, 모던, 세련된, 스포티, 이그조틱 이미지로 구분하였으며, 최현미(2007)<sup>33)</sup>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레이스의 표현양상을 로맨틱 엘레강스, 섹시 고저스, 모던, 액티브로 구분하였다. 즉 레이스는 소재 자체가 지닌 조형적 특징과 함께 패션에 있어 다채로운 이미지를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표현매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패션 영역에 있어 레이스는 여성적인 이미지를 대변하는 소재이다. 지난 2008F/W에 프라다(Prada)

는 <그림 1>과 같이 레이스와 여성의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 전통 기위르 레이스(guiPURE lace)를 중심으로 소재 자체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 전달과 감정적 함축성을 컬렉션에 표현하였다.<sup>34)</sup> 단순히 소재로서의 레이스가 아닌 여성의 삶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전환되어 컬렉션 전체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나타냈다고 생각된다. 또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크로세 기법에 의한 정교한 레이스를 원피스 전체에 적용하여 장식적인 문양이라는 조형매체로 표현하였으나 <그림 2>,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흑백의 대비로 표현되는 레이스를 통해 디자인의 구성 라인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역할과 함께 간접적인 인체의 노출로 관능적인 이미지까지도 표현하였다 <그림 3>. 이러한 레이스 소재는 여성의 인체라는 감각적인 공간 안에서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 부각은



<그림 1>  
Prada, 2008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2>  
Alexander McQueen,  
2008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3>  
Jean Paul Gaultier,  
2009S/S  
(출처: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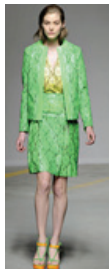
<그림 4>  
Balenciaga, 2011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5>  
Louis Vuitton, 2012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6>  
Moschino, 2010F/W  
(출처: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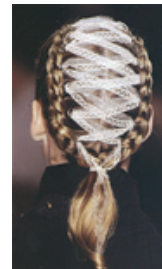
<그림 7>  
Christopher Kane,  
2011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8>  
Givenchy, 2010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9>  
Jean Paul Gaultier,  
2003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0>  
Sass & Bide, 2006F/W  
(출처: 「Harper's bazaar」,  
2006. 5, p. 181.)



물론 순수와 관능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 또 다양한 선의 조합에 의해 형성된 공간과 비치는 바탕공간의 대비에 의해 표면 질감에 있어 부조적인 이미지 효과를 나타냈다.

또 <그림 4>와 같이 다양한 색상과 문양의 레이스를 의복 각 부분에 혼성시킴으로써 변화된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하고, <그림 5>와 같이 화이트 레이스를 이용하여 여성스럽고 순수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특히 <그림 6>처럼 의복 일부분에 다른 직물과 중첩시켜 표현함으로써 착시 효과 및 레이스가 적용된 라인에 의해 여성의 인체를 보다 부각시키는 강조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림 7>과 같이 가죽소재에 컷워크기법을 통해 레이스와 같은 조형이미지를 나타내 착시 효과뿐만 아니라 소재의 탈 경계적인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더 나아가 <그림 8>과 같이 레드 레이스의 란제리 룩 연출은 강렬하고 자극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그림 9>의 블랙 레이스의 바디슈트와 우산 등 온몸을 감싸고 있는 레이스는 관능적이면서도 유희적인 이미지까지도 연출하게 한다.

## 2) 메이크업 및 소품

의복 아이템에 활용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메이크업이나 가면, 모자 등 패션소품 영역에 있어서도 레이스의 활용을 찾아볼 수 있다. 맹월

(2011)<sup>35)</sup>은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 레이스의 조형적 특징을 유희성, 역설성, 장식성, 관능성으로 구분하였는데, 패션과 더불어 메이크업 역시 레이스와 같은 이질적 소재를 사용하여 탈 경계적인 표현방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헤어장식으로 활용된 <그림 10>, 우산으로 활용된 <그림 9>, 구두, 핸드백, 모자 등 각종 패션 소품에 활용되어 장식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또 확장된 오브제 개념으로 메이크업에 활용되기도 하는데, <그림 11> 같이 나뭇잎 형상의 레이스 패턴은 메이크업을 위한 이질적 오브제로, <그림 12>의 반가면 형태로 연출되어 에로틱한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한다. <그림 13>의 모자 표면뿐만 아니라 레이스 전체로 뒤덮인 선글라스는 기능적인 측면이 아닌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시킨 하나의 오브제로 존재하며, 전등갓을 연상시키는 <그림 14>의 거대한 모자는 블랙 레이스로 표현되었고, <그림 15>는 흑백의 레이스로 조합되어 얼굴 전면을 가리는 복면의 형태로 표현됨으로써 그로테스크한 이미지까지도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 레이스가 지닌 투명성과 장식성이라는 조형적 특징은 인체 위에서 표현되는 조형예술, 즉 패션의 공간 위에서 장식적, 관능적, 유희적, 투명성이라는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매체로 작용하며, 패션 소재인 동시에 다양한 이미지를



<그림 11>  
Christian Dior, 2003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2>  
Lanvin, 2004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3>  
Jean Paul Gaultier, 2003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4>  
Givenchy, 2010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5>  
Alexander McQueen, 2012S/S  
(출처: <http://www.style.com>)

연출하는 확대된 개념에서의 장식적인 오브제로 존재한다고 하겠다.<sup>36)</sup> 특히 현대조형예술에 표면 매체로 활용된 레이스가 전통 레이스의 구조적 형태에 의해 공간적 투명성의 표현특성을 나타낸<sup>37)</sup> 반면 인체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패션에 있어서 이 투명성은 관능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특징으로 연결되어 작용하게 된다. 사용되는 레이스의 색상이나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투명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나, 레이스의 뚫린 공간에 의해 간접 노출되는 인체는 공간적 투명함의 표현특성과 동시에 보이고 보고자하는 상호욕망의 가치를 반영하여 에로틱한 관능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즉 패션의 경우 공간적 투명성의 가치는 관능적 이미지를 자아내는 표현 매체로 연결된다고 사료된다.<sup>38)</sup>

## 2. 건축과 인테리어

인간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객체로서의 패션과 건축의 상호관계 및 형태적, 구조적 유사성은 끊임 없이 주시되어 왔으며,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 두 영역에서 도출된 공간구조물은 인체와 재료의 융합에 의한 삼차원의 창조적 결과물로 제시된다. 특히 건축에 있어 표면소재의 물성과 형태는 건축물 전체의 조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39)</sup>

이러한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의 물성에 대해 실험

적인 건축물을 제시하는 헤르조그와 드 뮈론(Herzog & de Meuron)은 <그림 16> 같이 레이스의 조형요소인 연속적인 선의 결합에 의한 장식을 시각적 장식 효과로 전환시켜 건물 외벽에 적용하였다.<sup>40)</sup> 포스터와 파트너스(Foster & Partners) 역시 <그림 17>의 상하이 엑스포 아랍에미리트(Arab Emirates) 전시장 외관에 아라베스크 문양의 레이스 장식을 적용한 또 하나의 벽을 적용하여 투각기법과 같은 이미지로 장식적 조형미를 강조하였다<sup>41)</sup>. 또 SJB사는 <그림 18> 같이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함에 있어 외벽 일부분에 빅토리아 시대의 레이스문양을 적용하여 포함함으로써 모던한 건물의 형태와 함께 장식적 이미지의 조화를 나타냈으며<sup>42)</sup>, <그림 19>의 건축 외벽에 설치된 레이스 패턴의 장식은 이중 커튼과 같은 형식으로 설치되어 중첩에 의한 조형적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특히 레이스 패턴에 설치된 조명에 의해 야간에는 약 256가지 색상으로 점등되어 화려한 장식미를 연출하였다.<sup>43)</sup> 이러한 건축의 외관뿐만 아니라 매장 인테리어에도 활용되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한다. 유명 슈즈 브랜드인 마놀로 블라닉(Manolo Blahnik)은 <그림 20>의 모스크바와 두바이 매장에 레이스 패턴의 인테리어 장식을 통해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는데, 모스크바 매장은 입구에서부터 약 15m 길이에 설치된 이 조형물은 인조대리석을 섬세한 레이스 패턴으로 레이저 커팅 하여 각 벽면을 장식함으로써<sup>44)</sup>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16>  
Herzog & de Meuron  
(출처: <http://www.ceramicforms.com>)



<그림 17>  
Arab Emirates pavilion  
(출처: <http://atelier-ad.blogspot.com>)



<그림 18>  
SJB apartments  
(출처: [www.topboxdesign.com](http://www.topboxdesign.com))



<그림 19>  
John Lewis store  
(출처: <http://www.theplan.it>)



<그림 20>  
Manolo Blahnik  
Moscow(출처: <http://www.e-architect.co.uk>)

이와 같이 건축이나 인테리어분야에서 레이스라는 소재는 본연의 물성이 아닌 물질적 재해석과 변용을 통해 건축적 조형을 위한 하나의 표현매체로 존재한다.<sup>45)</sup> 전통 레이스에서 표현되는 오픈된 공간은 건축물에 있어 공간적 개방성과 투명함의 표현특성을 나타내며 선의 무한한 조합이나 문양에 의한 장식성의 가치는 건축이라는 삼차원의 공간에서 새로운 조형표현을 위한 매체로 작용하는 것이라 사료된다.<sup>46)</sup>

### 3. 설치미술

지난 2008년 전통 레이스의 생산지 중 하나인 벨기에의 브뤼게(Bruges)에서 개최된 『The face of lace』 전시에서 많은 예술작가들은 전통 레이스에 대한 변용과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조형가치를 표현한바 있다. 약 4개월 여간 도시의 거리, 건물, 운하 등 도시 전체에서 이루어진 이 전시는 레이스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 변용의 조화를 표현하였으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으로 탈바꿈시켰다.<sup>47)</sup> <그림 21>은 도로 위에 레이스를 설치한 스튜디오 옴스(Studio Ooms)의 작품이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위에 설치된 백색의 화려한 레이스는 일시적인 횡단보도의 도구로 활용되었고, <그림 22>는 도시 지도로서 레이스로 표현되어 공공디자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네덜란드 작가인 아넷 코웬버그(Annet Couwenberg)

는 레이스의 역사적 가치에 의미를 둔 개념적 작품을 선보였다. <그림 23>은 17세기 네덜란드 초상화의 레이스 러프칼라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판소리 명창들이 착용한 한복과 융합함으로써 동, 서양이라는 공간과 역사적 시간성을 조월한 상호융합의 소통수단으로 레이스를 활용한 것이다. 특히 값비싼 레이스 소재가 아닌 페이퍼 도리(Paper doily)라는 저렴한 소재로 재료적 변형을 취함으로써 부의 산물로 작용하던 과거 레이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한편 레이스를 대신한 소재에 레이스와 같은 예술적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였다.<sup>48)</sup>

또 설치작가인 쉘라 클라인(Sheila Klein)은 린넨, 대마 및 스테인리스 스틸 원사 등을 혼합하여 <그림 24> 같은 설치작품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레이스의 구조적 형태와 기법을 활용하고 다양한 소재적인 융합을 가한 이러한 조형물은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외부공간의 투시로 인해 공간적 투명성과 가볍고 개방적인 이미지까지도 나타낸다.<sup>49)</sup> 토드 분티에(Tord Boontje) 역시 레이스의 구조적 기법을 이용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그림 25>는 파우더 코팅 강철과 폴리에틸렌 로프를 이용한 거미줄 형상의 레이스 소파<sup>50)</sup> 소재적인 변형을 가했으나 레이스의 표현기법을 차용하여 연속적인 선의 조합에 의한 추상적 조형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소재 변형을 통해 레이스의 새로운 조형가치를 탐색하는 작업은 <그림 26>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네덜란드 디자인 회사인



<그림 21>  
Lace pedestrian  
(출처: <http://designboom.com>)



<그림 22>  
Lace map  
(출처: <http://designboom.com>)



<그림 23>  
Pansori singers  
(출처: <http://www.annetcouwenberg.com>)



<그림 24>  
Cartouche  
(출처: <http://www.sheilaklein.com>)



<그림 25>  
Lace sofa  
(출처: <http://www.tordboontje.com>)



<그림 26>  
Lace fence  
(출처: <http://coolboom.net>)



디메이커산(Demarkersan)은 레이스의 기본구조와 기법, 장식적인 문양을 그대로 재현하는 대신 아연 도금된 특수 PVC 철사를 이용한 펜스로 전환하여 공공 디자인으로 활용하였다.<sup>51)</sup> 이는 새로운 물성의 소재와 철조망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치와 부의 상징이던 레이스 의미가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예술적 공공디자인으로 전환된 것으로<sup>52)</sup> 기존 레이스가 지닌 공예품이라는 인식의 틀을 벗어나 상징적 의미 변화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설치작품에 나타난 레이스는 전통 레이스의 적용이나 상징성, 이미지 차용을 통해 개념적인 작품의 표현매체로 작용하거나, 전통 레이스의 구조와 기법, 장식적인 문양을 작품 표현의 조형매체로 간주하고 재료적 변형을 통해 레이스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갖게 하며 더 나아가 공공디자인으로까지 전환되어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sup>53)</sup>

#### 4. 공예

연속적인 선의 결합과 다양한 문양에 의해 장식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레이스의 조형적 특성은 가구나 조명 등 각종 공예디자인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어 나타난다. 마르셀 완더(Marcel Wanders)는 레이스 표면의 질감과 구조적 형태에 초점을 두고 합성수지라는 재료적 변형을 통해 <그림 27>과 같이 레이스 패턴의 의자를 선보였다.<sup>54)</sup> 칼 레인(Cal Lane)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사물들을 여성적인 이미지의 공예작품으로 전환시켜 선보이거나, 삽이나, 캔, 산업폐기물과 같이 생명력이 없는 다양한 오브제들을 이용해 조형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로<sup>55)</sup> <그림 28> 같이 금속 손수레에 정교한 레이스 패턴을 새겨 장식적인 공예작품으로 전환시키기도 한다.

지난 2007년 뉴욕에서 열린 『Radical Lace & Subversive Knitting』 전시에서는 과거 전통적인 수공예에 머물렀던 레이스와 니팅이라는 장르를 과감하고 예술적인 작품으로 승화시킨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여졌다. 전시의 큐레이터인 홀리 호트너(Holly Hotchner)는 전통적인 소재와 현대의 기술이 만나 조화를 이룬 새로운 예술장르의 개척이라고까지 언급하였다.<sup>56)</sup> 닐 반 디크(Niels Van Dijk)는 광섬유를 이용하여 보빈 레이스기법으로 제작한 조명기구 <그림 29>를 선보였는데<sup>57)</sup> 뚫린 공간을 통해 투명함과 재료적 특성을 통해 연출되는 빛의 효과로 화려한 장식성을 나타낸다. 레이스의 조직구성을 기술적 대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를 현대적 소재와 의미로 모색함으로써 감각적인 동시에 기능적 조명디자인으로 표현된 것이다. 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발광소재 등을 이용한 작은 생활 소품에서부터 각종 조형물에 이르기까지 실험적인 작품들로 구성된 이러한 전시는 현대기술과 융합된 전통 레이스의 새로운 예술적 장르 개척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전통 레이스를 압착시켜 그릇이나 디자인용품 등의 표면 재질로 활용하기도 하고, 전통 레이



<그림 27>  
Crochet chair  
(출처: <http://designb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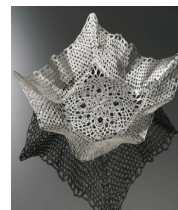
<그림 28>  
Wheelbarrow  
(출처: <http://www.callane.com/works.html#>)



<그림 29>  
Bobbin lace lamp  
(출처: <http://www.aol.com/>)



<그림 30>  
Lace chairs  
(출처: <http://www.aol.com>)



<그림 31>  
Eastern candy  
(출처: <http://www.ateliermanferdini.com>)

스의 문양이 <그림 30>의 글라스파이버(glass fiber)와 같은 고성능 복합 재료와 융합되어 화려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의자로<sup>58)</sup>, <그림 31>의 금속 소재에 레이저 커팅을 통해 19세기 루마니아 레이스 패턴을 그대로 재현한 그릇<sup>59)</sup> 등 생활 속 디자인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종 공예 디자인 분야에 표현매체로 활용된 레이스는 재료적 변형과 함께 표면의 질감이나 문양, 표현기법 등 레이스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조형요소들을 변형하고 해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 레이스가 지닌 공간적 투명성과 장식성, 더 나아가 수공예적인 예술 공예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다양한 제품디자인에 반영하여 그 활용가치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하겠다.<sup>60)</sup>

## 5. 논의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 레이스는 하나의 직물소재라는 차원을 넘어 패션뿐만 아니라 전시장의 예술작품으로, 도심 속 건축물로, 또 생활 속 디자인용품 등 현대 조형예술의 다양한 분야에 확장된 표현매체의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 레이스가 지녔던 종교적 의미, 부와 신분의 상징성 등은 이제 보다 독창적인 예술표현을 위한 하나의 조형요소로서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예술이 나타내는 자유로운 표현 의지이자 경계초월의 한 단면이라 사료된다. 건축, 인테리어, 설치미술, 공예의 분야에 적용된 레이스는 전통 레이스의 소재나 표현기법의 재현뿐만 아니라 조형을 위한 하나의 표현매체로 간주되어 레이스 고유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부분 혹은 전면적으로 차용된 재료적, 구조적 변용의 사례를 나타내며,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건축용 자재에서부터 섬유, 철사, 금속, 유리, 종이, 글라스파이버, 합성수지등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함에 따라 탈 경계성의 가치를 반영하였다. 레이스의 구조적 형태와 같은 시각적 조형요소만을 차용하여 재료나 구조적 변용으로 표현된 건축, 설치미술, 공예분야의 레이스는 재료의 본질을 왜곡, 부정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레이스 그 자체를 강조하게 한다. 적용된 영역이나 소재의 변용과는 무관하게 열린 공간을 통한 투명함, 개방성, 수공예적인 장식성 등 레이스가 지닌 속성을 보다 부각시키며 전통 레이스가 지녔던 과시적 소비의 산물로서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조형예술의 새로운 표현매체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였다. 반면 다른 조형예술분야와 달리 대부분 섬유소재를 위주로 전개되는 패션의 경우 레이스는 소재라는 패션디자인의 요소로서 표현매체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체라는 유기적 공간 안에서 다양한 레이스 종류와 기법, 색상, 다른 소재들과의 조화, 적용되는 의복아이템 등 다양한 변화요소에 따라 여성적인 우아함부터 관능적인 이미지, 유희적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러나 레이스가 아닌 다른 소재에 컷워크와 같은 레이스기법을 통해 레이스와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메이크업이나 패션소품의 장식적인 오브제로 활용되어 탈 경계적인 소재의 변용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적용되는 예술장르에 따라 용도의 차이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전통 레이스를 표현매체로 활용함에 따라 건축, 인테리어, 설치작품, 공예, 패션 등에 활용된 레이스는 공통의 표현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레이스의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뚫린 공간은 시각적으로 가벼움과 개방적 이미지를 연출하며 조형예술공간의 투명성을 위한 표현매체로 작용하였다. 둘째, 이러한 투명한 공간은 현대조형예술의 표현에 있어 투명과 불투명의 중첩된 공간효과를 이용해 구성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 가변적 조형미의 표현까지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셋째, 장식적인 전통 레

<표 2> 전통 레이스와 현대조형예술의 표현매체로 나타난 레이스

구분	표현방식	소재	기법	특성
전통 레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의 연속적 조합 및 자연, 인물, 신화 등의 장면을 문양으로 표현</li> <li>- 오픈워크에 의한 공간의 투명성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린넨 사, 금사, 은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공레이스</li> <li>- 기계레이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픈워크에 의한 투명성</li> <li>- 선과 문양에 의한 장식성</li> <li>- 신분과 부의 상징으로서의 사치성</li> </ul>
패션, 메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복과 패션소품의 소재, 메이크업의 오브제로 레이스 소재 직접 활용</li> <li>- 레이스표현기법을 다른 소재에 적용하여 표현매체로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공레이스와 기계레이스 등 다양한 레이스 및 가죽, 직물 소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레이스 기법의 재현, 서로 다른 문양의 레이스를 복합, 또는 중첩시켜 표현</li> <li>- 오픈워크를 다른 직물에 활용하여 레이스이미지표현</li> <li>- 콜라주기법으로 의복 일부부이나 메이크업에 장식적 요소로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뚫린 공간에 의한 투명성</li> <li>- 간접노출에 의한 관능성</li> <li>- 다양한 레이스 문양에 의한 장식성</li> <li>- 중첩에 의한 가변적 조형성</li> <li>- 확장된 소재개념의 탈 경계성</li> </ul>
건축, 인테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이스에 표현된 선의 연속적인 결합 이미지 적용</li> <li>- 레이스의 구조적, 장식적 이미지를 표현매체로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자재, 철사, 금속 등 다양한 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각기법이나 부조적인 효과의 조각과 같은 표현으로 레이스와 같은 이미지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뚫린 공간에 의한 투명성, 개방성</li> <li>- 연속적인 선의 결합과 문양에 의한 장식성</li> <li>- 확장된 소재개념의 탈 경계성</li> </ul>
설치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이스에 표현된 선의 연속적인 결합 이미지 적용</li> <li>- 레이스의 상징성과 구조적, 장식적 이미지를 표현매체로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섬유, 철사, 금속, 유리, 종이, 글라스파이버, 합성수지 등 다양한 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레이스 기법의 재현 및 변형기법</li> <li>- 다양한 소재의 물성을 레이스와 같은 형상으로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적 변형과 구조적 변용의 탈 경계성</li> <li>- 중첩에 의한 가변적 조형성</li> <li>- 뚫린 공간에 의한 투명성</li> </ul>
공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이스에 표현된 선의 연속적인 결합 이미지 적용</li> <li>- 레이스의 구조적, 장식적 이미지를 표현매체로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섬유, 철사, 금속, 유리, 글라스파이버, 합성수지 등 다양한 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레이스 기법의 재현 및 뚫기, 엮기, 커팅 등의 변형기법</li> <li>- 다양한 소재의 물성을 레이스와 같은 형상으로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적 변형과 구조적 변용의 탈 경계성</li> <li>- 연속적인 선의 결합과 문양에 의한 장식성, 수공예성</li> </ul>

이스 문양의 재현 및 연속적인 선의 조합으로 생성되는 다양한 문양을 통해 수공예적인 예술성의 가치를 반영하였다. 넷째, 더 나아가 전통 레이스는 하나의 직물 소재로서 뿐만 아니라 확장된 오브제 개념으로서 현대조형예술에 작용하여 탈 경계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전통 레이스가 지닌 우아함과 사치의 산물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오늘날 예술작품의 표현매체이자 대중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표현매체로 전환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61)</sup>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IV. 결론

오늘날 사회전반에 전개되는 탈 경계 현상은 예술 분야에 있어 표현영역의 확대 및 재해석으로 나타나 창조적 예술작품을 위한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건축과 인테리어, 설치작품, 공예, 패션 등 현대조형예술에 활용된 레이스의 사례를 통해 표현매체로서 레이스를 비교 고찰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통 레이스는 과거 종교적인 측면에서 활용된 것을 시작으로 서구 유럽의 장식적인 수공예품으로서 복식이나 각종 장신구들에 활용되었고, 오픈워크에 의한 공간의 투명성, 선의 연속적인 결합과 다양한 장식문양에 의한 장식성이라는 조형적 특성을 지닌

레이스는 사회적 신분과 부의 상징이라는 사치의 산물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전통 레이스는 현대 조형예술에서 의복과 연관된 직물의 소재라는 고정된 관념을 벗어나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레이스의 구조나 기법, 문양 등 레이스의 특징적인 요소들은 내면의 작품세계를 형상화하는 조형매체이자 표현매체로 간주됨으로써 새롭게 해석되어 나타났다. 현대조형예술의 표현매체로 나타난 레이스 중 첫째, 패션분야에 적용된 레이스는 각종 다양한 레이스가 소재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활용되었으나 인체라는 공간 위에서 형성되는 특성상 적용되는 의복아이템과 표현방식에 따라 장식적이고 관능적인 이미지에서 순수하고 유희적인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 의복이나 각종 패션소품의 소재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의 이질적인 오브제로 활용되는 등 독창적인 이미지 창조를 위한 표현매체로 활용되었다. 둘째, 건축물의 경우 외관을 구성하는 표피에 레이스의 오픈워크기법을 적용하여 공간적 개방성과 투명성은 물론 장식적인 외관연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기본 구조 외에 또 다른 건축구조물로 구성되어 중첩된 공간에 의한 가변적 조형미를 표현하였고, 내부인테리어에 적용됨으로써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장식성의 공간을 연출하였다. 셋째, 설치작품에서는 예술가들의 내면의 작품세계를 형상화 시키는 조형매체로 작용함을 물론 전통 레이스의 재현 및 소재적인 변형을 통해 레이스의 상징성과 구조적, 장식적 이미지를 표현매체로 활용하였으며 전시장 내부는 물론 도시 공간의 공공디자인으로까지 확대된 표현영역을 나타냈다. 넷째, 각종 가구나 그릇, 조명 등 공예분야에 활용된 레이스 역시 소재적인 변형과 함께 전통 레이스의 조형요소를 표현매체로 활용하여 생활 디자인의 영역으로까지 확대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형예술 영역에서 그 표현범위와 방법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레이스는 전통 레이스라는 표현매체를 기반으로 전개됨에 따라 공간적 투명성, 선과 문양에 의

한 장식성, 중첩에 의한 가변적 조형성, 확대된 오브제로서 탈 경계성이라는 공통의 표현특성을 나타내며 레이스에 대한 새로운 창조적 시각을 갖게 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전통 레이스가 현대조형예술의 새로운 표현매체로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레이스에 대한 재해석과 창조적 시각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패션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 창조에 있어 새로운 조형매체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공통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재해석, 그리고 현대 첨단기술과 접목된 현실화의 과정은 독창적인 작품 창조를 위한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패션디자인의 독창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한 다양한 표현매체들 역시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레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나 오브제의 창조적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예술표현의 영역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가 보다 다양한 조형예술분야를 다루지 못하였고, 건축과 같이 거대 구조물을 다룸에 있어 사진 상의 작은 화면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인 조형성을 전달하지 못하였음을 한계점으로 밝힌다. 또한 조형예술의 표현매체로서의 레이스라는 한정된 범위에 따라 비교 고찰함으로써 패션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레이스의 조형적 특성을 다루지 못하였음을 한계점으로 밝히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김선영 (2013. 5). 현대조형예술의 표현매체로 활용된 전통 레이스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p.280.
- 2) 현대미술코드를 잡아라 (2006. 2. 21). 조선일보, p.A21.
- 3) 송계영, 유현아 (2010). 현대적 조형매체로 적용된 레이스의 조형성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1(2), p.158.
- 4) 김선영. 앞의 책, p.280.
- 5) 이경희 (2002). 유럽에서의 레이스의 변천과 활용,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1), pp.19-30.

- 6) 이순홍 (2003). 서양 복식사에 나타난 의상 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1), pp.20-46.
- 7) 김용숙, 최종명 (2008), 현대패션에 표현된 레이스 소재의 이미지, 생활과학연구논총, 12(2), pp.197-204.
- 8) 맹월 (2011). Lace를 이용한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0.
- 9) 조은주, 간호섭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Handcraft style에 관한 연구, 디자인포럼, 21(5), pp.113-131.
- 10) 최현미 (2007). 현대여성패션에 나타난 레이스 표현을 중심으로 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34.
- 11) 김현진, 김혜경 (2011).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2005 S/S-2011 F/W 국외 컬렉션 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3), pp.99-115.
- 12) 김선영. 앞의 책, pp.280-282.
- 13) 맹월. 앞의 책, p.26.
- 14) 다음 백과사전(검색어: 레이스), 자료검색일 2012. 6. 1,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6r0753a>
- 15) 맹월. 앞의 책, p.27.
- 16) 송계영, 유현아. 앞의 책, p.158.
- 17) 네이버 백과사전(검색어: 레이스). 자료검색일 2012. 6. 1, <http://100.naver.com/100.nhn?docid=54988>
- 18) 김용숙, 최종명. 앞의 책, pp.199-200.
- 19) 이경희. 앞의 책, p.25.
- 20) 김용숙, 최종명. 앞의 책, p.200.
- 21) 다음 백과사전(검색어: 레이스), 자료검색일 2012. 6. 1,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6r0753a>
- 22) 맹월. 앞의 책, pp.29-32.
- 23) 김선영. 앞의 책, pp.280-281.
- 24) 김용숙, 최종명. 앞의 책, p.201.
- 25) 맹월. 앞의 책, pp.29-33.
- 26) 전혜정 (2004). 특수 직물과 패션디자인, 서울: 신정, pp.40-42.
- 27) 최인려, 방혜경, 정은주, 안현숙, 김월순 (2007). 패션소재와 봉제, 파주: 교문사, pp.40-42.
- 28) 최현미. 앞의 책, pp.30-40.
- 29) 레이스 (2012. 6. 1).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2. 6. 1, <http://www.samsungdesign.net/Databank/Encyclopedias/Textile Dictionary/content.asp?an=144>
- 30) 이호영 (2004). 의류전문매장의 투명성 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 31) 송계영, 유현아. 앞의 책, pp.159-160.
- 32) 김용숙, 최종명. 앞의 책, pp.197-204.
- 33) 최현미. 앞의 책, pp.55-73.
- 34) 신광호 (2008. 9. 1). 레이스 입는 여인, Vogue Korea, p.243.
- 35) 맹월. 앞의 책, pp.55-69.
- 36) 김선영. 앞의 책, p.281.
- 37) 송계영, 유현아. 앞의 책, p.163.
- 38) 김선영. 앞의 책, p.281.
- 39) 박신미, 이재정 (2008). 20세기 패션디자인의 건축적 패러다임 특성 고찰, 복식, 58(2), p.79.
- 40) 맹월. 앞의 책, p.47.
- 41) Not your grandmother's lace (2007. 12. 26). Atelier drome, iip architecture, retrieved 2012. 6. 1. <http://atelier-ad.blogspot.com/2007/12/not-your-grandmothers-lace.html>
- 42) Louisa Road apartments in Sydney, Australia (2011. 2. 12). Top box design, retrieved 2012. 6. 1. <http://www.topboxdesign.com/tag/sydney/page/4/>
- 43) John Lewis department store (2012. 6. 1). The plan, retrieved 2012. 6. 1. [http://www.theplan.it/j/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43:john-lewis-department-store&catid=9:report-037&Itemid=27&lang=en](http://www.theplan.it/j/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43:john-lewis-department-store&catid=9:report-037&Itemid=27&lang=en)
- 44) Adrian, W. (2014. 3. 6). Manolo Blahnik Moscow store, e-architect, retrieved 2014. 3. 28. [http://www.e-architect.co.uk/moscow/manolo\\_blahnik\\_boutique.htm](http://www.e-architect.co.uk/moscow/manolo_blahnik_boutique.htm)
- 45) 송계영, 유현아. 앞의 책, p.162.
- 46) 김선영. 앞의 책, p.281.
- 47) Kantlijnen or the face of lace, design exhibition in Bruges, Belgium (2012. 6. 1). Designboom, retrieved 2012. 6. 1. <http://www.designboom.com/weblog/cat/10/view/5735/kantlijnen-or-the-face-of-lace-design-exhibition-in-bruges-belgium.html>
- 48) Clothing as interface (2012. 6. 1). Annet Couwenberg, retrieved 2012. 6. 1. <http://www.annetcouwenberg.com/>
- 49) 송계영, 유현아. 앞의 책, p.163.
- 50) Lace sofa (2012. 6. 1). Studio Tord Boontje, retrieved 2012. 6. 1. <http://tordboontje.com/projects/studio/lace-sofa/>
- 51) Lace fence (2007. 9. 21). Coolboom, retrieved 2012. 6. 1. <http://coolboom.net/products/lace-fence-by-demakersvan/>
- 52) 송계영, 유현아. 앞의 책, p. 161.
- 53) 김선영. 앞의 책, p.281.
- 54) Crochet chair (2012. 6. 1). Designboom, retrieved 2012. 6. 1. <http://www.designboom.com/weblog/cat/10/view/5735/kantlijnen-or-the-face-of-lace-design-exhibition-in-bruges-belgium.html>
- 55) 5 shovels and wheelbarrow(2012. 6. 1). Designboom, retrieved 2012. 6. 1. <http://www.designboom.com/weblog/cat/10/view/5735/kantlijnen-or-the-face-of-lace-design-exhibition-in-bruges-belgium.html>
- 56) 레이스 & 니트 디자인전 (2012. 6. 1). 지엔느 리포트, 자료검색일 2012. 6. 1, [http://z-in.co.kr/style/reporter/view.jsp?board\\_seq=389](http://z-in.co.kr/style/reporter/view.jsp?board_seq=389)
- 57) Bobbin lace lamp (2012. 6. 1). Museum of arts and design, retrieved 2012. 6. 1. [http://collections.madmuseum.org/code/emuseum.asp?emu\\_action=searchrequest&moduleid=1&pr ofile=objects&currentrecord=1&style=single&crawlsearch=id/./is/./7972/./false/true](http://collections.madmuseum.org/code/emuseum.asp?emu_action=searchrequest&moduleid=1&pr ofile=objects&currentrecord=1&style=single&crawlsearch=id/./is/./7972/./false/true)
- 58) Lace (2006. 3. 2). Mcoloco, retrieved 2012. 6. 1. <http://mcoloco.com/archives/002243.php>
- 59) Eastern candy(2012. 6. 1). Metalaceart, retrieved 2012. 6. 1. [http://www.metalaceart.com/prod.asp?id=001\\_002\\_026\\_&size=1&color=3](http://www.metalaceart.com/prod.asp?id=001_002_026_&size=1&color=3)
- 60) 김선영. 앞의 책, p.281.
- 61) 위의 책, p.281.



# **A Comparative Study on the Use of Lace as a Medium of Expression in Modern Plastic Arts**

**Kim, Sun You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work examined the application examples of lace as a medium of expression in the modern plastic arts including architecture and interior, installation works, art crafts and fashion. The paper reconsidered the position of lace as an extended expressive device, beyond the realm of a fashion material and assisting with extension of expression range in developing creative design.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data analysis were carried out together on lace applied as a medium of expression in the modern plastic arts for the research method. It was found from research that the traditional lace indicated a new analytic interpretation in the modern formative art works, breaking the fixed concept of being a fabric related only to clothing and giving it sever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its structure, technique, and pattern that were expressed in the artworks. Also, as it was applied based on the expression of traditional lace, it showed common expressive characteristics in terms of spatial transparency, ornamentation with line and pattern, an artistic handicraft nature, variable formativeness with overlap, and transboundary features as an extended object, and introduced a new creative perspective toward lace.

Key words: plastic arts, medium of expression, lace